



“Global Developer”



(주)한화건설

부산 메가센터 꿈에그린 아파트 신축현장



| 부산 메가센터 꿈에그린 아파트 조감도

200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30여 한화인들이 하나 되어 한화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 메가센터 꿈에그린 아파트 신축현장(현장소장 상무 김재근)을 찾았다. 지난 2005년 7월 착공한 이 현장은 총 1564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로 부산지역의 아파트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장이다.

현장소장 김재근 상무는 “이 다음에 아이들과 이 앞을 지나가게 될 때 내가 이 아파트를 지은 책임자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공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밝힌다. (주)한화건설에서는 최근 이근포 부사장이 건설안전기술사에 합격하였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듯 현장소장 김재근 상무도 용기를 내어 시험에 도전해 보아야겠다는 말과 함께 현장을 설명한다.

* 고객 만족을 위한 최고수준의 공법 도입 현장

» 영구 배수공법과 V/H분리타설 공법 도입한 현장
이곳 현장의 지형특성상 아파트 기초지반으로 지하수의 침투유입이 예상되어 영구배수공법을 추가 시공해



| 부산 메가센텀 꿈에그린 아파트 현장의 한화인

수압의 직접적인 작용을 해소하고, 기초 바닥 슬라브 및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현장이다.

» V/H 분리타설 공법 도입

- 높은 지하층고와 장시간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문제점 해결

- 측압 및 거푸집의 장시간 존치에 따른 변형이 우려되며, 콘크리트 충전 및 다짐에 불리해 V/H공법을 도입
- 측압감소로 시공 안전성을 확보해 콘크리트 충전 용이 및 충분한 다짐으로 내구성 향상, 전용성 향상으로 가설재 절약, 대형거푸집 사용가능으로 공기단축 효과

* 부산 메가센터 꿈에그린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 사례



문제점

자재반입구 안전망 훼손으로 추락 및 낙하물 재해 우려

기대효과

상부 안전망 시설에 카라비나를 설치하여 커튼식으로 여닫이가 가능하여 훼손 방지



문제점

E/V 난간대 1단 설치시 향후 주변 고소작업 발생시 추락위험 우려

기대효과

E/V 난간대를 2단 설치하여 주변 고소작업 발생시 추락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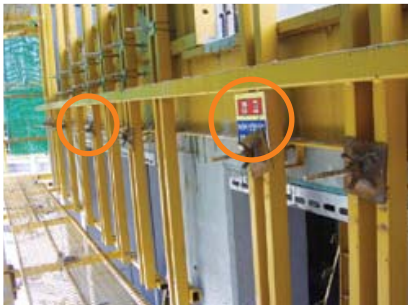


문제점

방호커버(180도) 사용함에 따른 근로자 손가락 절단사고 우려

기대효과

방호커버(270도) 변경에 따라 근로자 손가락 절단사고 예방



문제점

경품 인양작업시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사고 우려

기대효과

경품하부볼트 상단내 경고표지판 부착 및 경품인양 전용사다리 부착

*** 건설안전기술사 조봉도 과장이 이끄는 완벽 안전팀**

(주)한화건설은 Safety Technology의 정착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 기법으로 인간존중의 기본 이념 아래 법과 기본을 준수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곳 부산 메가센텀 현장은 이러한 한화건설의 의지를 한목에 엿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조봉도 안전과장은 힘주어 말한다.

(주)한화건설은 지난 9년간 자율안전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안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스스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끼게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교육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직종별 차별화된 위험성을 인식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장 안전 관리자의 전문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봉도 과장은 특히,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10일 미만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관리를 위해 체크하는 근로자 특별건강관리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귀띔한다.



Profil

현장소장 김재근 상무

- 부산대 건축공학과 졸
- 한화그룹 공채 입사
- Tonasib Fire Station 현장 근무
- 수원 천천지구 APT 현장 소장
- 용인 신봉 APT 현장 소장
- 대구 신당동 APT 현장 소장 역임



훌륭한 지휘자가 있어야 감동적인 음악이 연주되듯 수십 명의 근로자와 한화인을 지휘하며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재근 상무가 지휘하고 있는 부산 메가센텀 꿈에그린 아파트 현장. (주)한화건설이 창조한 이 아파트가 부산을 대표하는 주거문화로 자리잡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취재 • Willy



Global Development &
Construction Company
HANWHA

안전팀(김현열주임, 조봉도과장, 백태수대리, 한창석주임 좌로부터)